

사이쇼지 절

사이쇼지 절은 오모리 중심부의 서쪽에 위치한 정토진종(淨土眞宗)의 사찰입니다. 절 경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은 1739년에 지어진 커다란 본당이지만 사이쇼지 절은 독특한 형태의 경장으로 더 유명합니다. 절의 경전을 보관했던 이 건물은 메이지 시대(1868~1912)부터 제 2 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1930년대 후반까지 이와미 지방에서 번성했던 예술인 고테에(석회 미장을 활용한 벽체 부조 그림)라는 회반죽 부조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고테에는 사찰의 건축물이나 부유한 상인의 집 또는 창고에 자주 그려졌는데 화재와 악령을 물리친다고 믿어지는 용, 그리고 비옥함과 사업의 번창을 상징하는 토끼 등 운수를 좋게 만든다는 무늬로 장식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이와미 회반죽 예술의 인기는 도쿄와 오사카에까지 미쳐서 국회의사당이나 황태자의 거처인 도구고쇼(東宮御所) 등의 건축물을 장식하기 위해 이와미의 장인들이 고용되기도 했습니다.

사이쇼지 절의 고테에는 고테에 명인 중 하나로 알려진 마쓰우라 에이키치(1858~1927)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마쓰우라가 환갑을 맞이했을 무렵인 1918년에 제작된 것으로, 여기에는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지는 봉황, 중국 신화에서 ‘꽃들의 왕’으로 불리는 모란, 황실의 문장으로서 일본 여권이나 50 엔 동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티브로 사용되는 일본의 상징 국화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쓰우라는 이와미 은광과 가까운 일본해 연안 마을인 니마에서 태어났습니다. 눈부신 경력을 보유한 그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그리고 한국의 여러 도시에도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의 무덤은 사이쇼지 묘지에 있습니다.